천사와 사탄 그리고 알몸인간

(욥기 1:6~22)

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7.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9.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천사와 사탄 그리고 알몸인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천사와 사탄 그리고 알몸인간'
'알몸'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에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벗었으므로 창피해서 숨은 것이 아니라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알몸이 되었다는 의미와 본문 21절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라는 말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알몸인 상태를 두려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좋고 나쁜 것을 스스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좋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그것이 일어나면 해로울 것이라고 믿어지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에 대한 판단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좋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알몸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에서 마음을 채울 좋은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채울 좋은 것들에 대한 판단은 있는데 그것들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공백을 채울 것이 없는 상태가 곧 두려움입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이 없어질까 갖는 느낌이 불안이고, 또한 마음에 담을 것들을 얻지 못할까 걱정과 염려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마음의 공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공백 상태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의 공백을 채워야 하는 것들과 관계가 끊어져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회의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탄도 등장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회의의 주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간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를 두고 회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욥을 거명하십니다. 이 상태를 보면 사탄이 왔을 때에 하나님과 천사들의 보기에 이 땅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욥 이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구 위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욥 한 사람을 사탄에게 자랑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에서 천사와 사탄과 인간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또한 인격적 존재들입니다. 세상에는 동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곤충도 있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지만 인격적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과 천사와 인간은 인격적 존재들인데 이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천사의 관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관심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곧 인간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관심도 인간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인간의 관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심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천사의 관심도 인간의 관심이고, 사탄의 유일한 관심도 인간의 관심이기 때문에 천사와 사탄과 알몸의 인간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는 천상에서 살도록 지음 받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직접 뵙니다. 천사들의 마음의 특징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뵙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하고 만족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매력인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좋은 방향으로 다른 것인데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만큼 최고로 좋은 상태임을 뜻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서 구분되는 최상의 좋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천사들은 그 좋으심과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천사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때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력에 흠뻑 빠져있는 이성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인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육체와 붙어있기 때문에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육체로 만나는 것들에 마음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은 육체로 만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오직 믿음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천사들이 직접 보며 빠져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매력을 인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만나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먼저 더 많이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천사들처럼 직접 하나님을 뵙지 못하더라도 육체로 만나는 사랑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를 벗는 날에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들 되시는 것과 천사의 아들 됨은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랑할 만한 것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더 먼저 더 많이 사랑했다는 인격적인 특권 때문에, 육체를 벗을 때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나은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9절을 보면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라고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소유물을 많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물은 에리히 프롬의 "존재냐 소유냐"라는 질문의 그 소유가 아닙니다.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강아지조차도 마음에 담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강아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열 명의 자녀와 많은 종들과 재산이 있었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으니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것들을 모두 거둬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사탄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내면에 숨겨진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본래 천사

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력에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매력을 경배하는 대신에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만 그러한 매력을 가지고 경배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투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인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려는 마음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인간은 얼마든지 육체로 접하는 것을 쉽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수님과 동일한 아들로서 인정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질투와 시기를 가지고 있기에 인간이 어떻게든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시고 천사들 또한 기뻐하자, 사탄은 그 일에 찬물을 끼얹고자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열 명의 자녀들과 그 많은 재산들 그리고 인간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존귀함과 명성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없애버리시면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하나님도 아실 것이라고 질투와 시기의 마음으로 욥의 하나님 경외를 폄훼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 자체에 약이 오른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온전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육체 연관성 안에 갇혀있고 머물러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갇힌 상태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라는 것인데 이것이 사탄이 요구하는 것이고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을 알몸 되게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이나 나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내게 없을 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알몸인 상태입니다.
지옥은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없는 상태에서 천국의 하나님을 바라 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허락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자녀 등의 가치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았던 순간들을 후회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알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주시지 않기에 비어있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가 영원히 지속되기에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을 앞당겨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몸의 상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상태이지만, 진정

한 하나님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알몸의 상태가 아닌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게 되면 하나님 사랑은 시작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열 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을 때에, 욥이 그로 인해서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욥의 신앙은 자녀들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을 직선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거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궤적이 직선이 아니고 정직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했을지라도 정말로 좋아했던 것은 열 명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말이 다 거짓이고 사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다 쓸어가셨나 하고 불평을 한다면 욥의 마음은 먼저 재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거쳐서 하나님을 향하는 꺾인 선의 마음이었을 뿐 직선의 정직함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마음의 첫 번째 대상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첫 번째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것들을 모두 제거해서,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알몸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알몸이 되어야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는다면 그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지는 알몸이 되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경외는 알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마음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담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실제로 욥처럼 자녀를 데려가시지 않고 얼마 있지도 않은 재산을 가져가시지 않고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욥에게서 일어난 알몸의 상태가 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알몸의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 경외와 사랑은 출발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세상을 담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직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기 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욥과 같은 고통을 주시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부활과 승천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진정한 하나님 경외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을 끊임없이 알몸으로 유지시켜 주심으로서 하나님 경외가 계속되는 효과가 있게 해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욥에게 주어졌던 고난의 알몸 상태가 고난 없이 주어지는 특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